

## **A Structural Analysis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Maladaptive Conflict Cop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Kwon, Minhy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aster)

**Lee, Jeey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m, Hyeweon<sup>1)</sup>**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

< ABSTRACT >

---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maladaptive conflict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16 university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reater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was associated with greater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greater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was associated with greater maladaptive conflict coping. In addition, greater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maladaptive conflict coping were related to greater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did not necessarily lead to greater interpersonal problems. Rather,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led to university students' greater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which in turn predicted greater interpersonal problems. Third,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had an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the double mediation of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maladaptive conflict cop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provid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maladaptive conflict coping,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onal effect

---

1) Corresponding Author: Kim, Hyeweon, Assistant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7 Ungjin-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32553 / E-mail: [wisdom77@gjue.ac.kr](mailto:wisdom77@gjue.ac.kr)

##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대인관계문제의 구조적 관계

권민혜 (인천대학교, 석사)  
이지연 (인천대학교, 교수)  
김혜원<sup>1)</sup> (공주교육대학교, 조교수)

---

### < 요약 >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현재의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31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표현억제 경향을 많이 보였고, 정서표현억제를 많이 할수록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사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정서표현억제 경향을 높이고, 정서표현억제 경향을 보일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 대인관계문제, 매개효과

---

---

1) 교신저자: 김혜원, 조교수,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 E-mail: [wisdom77@gjue.ac.kr](mailto:wisdom77@gjue.ac.kr)  
논문투고일자: 2020. 10. 31 / 심사일자: 2020. 11. 5 / 게재확정일자: 2020. 11. 26

## I. 서론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모든 발달 단계에서 인간관계는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데, 이 시기에 대인관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Kwon, 2010). 실질적으로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주된 이유도 대인관계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Kwon, 2019). 이와 더불어 2017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63.2%가 혼밥과 혼술을 선호하고, 이의 주된 이유로 ‘혼자가 편해서’ (60.1%)라고 응답하여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Yoo, 2017, August 11).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정적인 관계에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것을 대인관계문제라고 할 수 있다(Park et al., 1998).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관계 기피나 다양한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Alden et al., 1990; as cited in Kim & Jin, 2019), 대인관계능력의 부족은 이후 직업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Lee & Jeon, 2015; Yu et al., 2012). 따라서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을 밝혀 보다 적응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심리적 장애를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에(Kwon & Kim, 200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가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발달적 특징인 대학생 시기(Erikson, 1963)에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대인 외상 경험이 언급된다(Hong & Kim, 2017). 애착 연구자들은 아동기의 가족관계, 즉 애착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llen, 2005; Bowlby, 1980). 또 다른 연구자들도 성장기에 이루어진 학대 경험은 상처를 깊게 남기고, 이로 인한 후유증 또한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인기까지 이어져 삶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Barum & Perrone-McGovern, 2017; Kang, 2018). 최근에도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고(Choi, 2020),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부가 프라이팬에 딸의 손을 지저 화상을 입게 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Hong, 2020, June 8), 두 사건에서 모두 친부·친모는 아이들을 방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아동학대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Son,

2020, June 7).

실질적으로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이 10.0%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학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반면 방임은 2014년 1,870건(18.6%) 이후 2018년 2,604건(10.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방임이 정서적 학대에 비해서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발견이 어렵고 방임의 후유증으로 발달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Kang & Jang, 2018)에서 알 수 있듯이 방임행위 역시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7). 또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예전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정서적으로 가해지는 학대나 방임을 문제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존재한다(Kim & Lee, 2018). 더욱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보다 더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Krause et al.,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단독으로 살펴본 연구보다 이를 종합적인 학대 경험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다(Kwon & Jung, 2017).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경험이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동안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Kwon & Jung, 2017; Seok & Kim, 2018)이나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학대경험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Bae & Cho, 2014; Choi & Lee, 2018; Ko, 2008; Messman-Moore & Coates, 2007)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Park(2003)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반항-불신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Hwang & Lee(2010)는 부모의 방임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재연하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Lee, 2006)도 있고,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Choi & Lee, 2018; Kwon & Jung, 2017)도 있다. 또 다른 연구들을 고찰해보아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정서조절이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Kim & Kim, 2020). 사실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Atsushi et al., 2002; Song,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경험이 대학생 시기

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재검증해보고자 하였고, 이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조명해보고자 하였으며,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를 제외시킨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함께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 어떤 변인들이 이를 매개하는지 그 기제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관련 매개변인에는 자기효능감(Park, 2003), 심리적 경직성(Park, 2017), 낙관성(Bae & Choi, 2014), 정서인식의 어려움(Kim et al., 2012; Seok & Kim, 2018), 정서표현억제·역기능적 분노표현·정서조절(Choi & Lee, 2015; Jung & Sohn, 2016; Kwon & Jung, 2017) 등이 있다. 그러나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매개변인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전히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부족하다(Choi & Lee, 2018; Kim et al., 2012). 또한,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외상 경험 자체보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Shin & Son,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주로 정서적 영역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Morris et al., 2007; Jung & Sohn, 2016)과 인간관계의 핵심적 요인이 정서라는 주장(cited in Chang & Kim, 2011; Salovey & Mayer, 1990; Swinkels & Guiliano, 1995)에 기반하여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 관련 변인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서표현억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정서표현억제는 정서조절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서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으나 이를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Kim, 2014), 이미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지 않도록 행동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ross & John, 2003). Gross(1993)는 정서적 학대 경험은 정서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예: 감정을 드러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을 갖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때 억제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as cited in Seo & Kim, 2012). 그러나 Dijke(2008)는 정서적 학대와 같은 복합외상 경험은 자기조절에 손상을 일으켜 과소 조절되면 공격성 등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출할 수 있고, 과잉 절제되면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는 양가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애착유형에 따라 분노 정서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Kwon & Jung, 2017; Searle & Meara,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방임 및 학대 경험이 정서표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인의 정서표현 방식은 개인이 맺는 주요한 대인관계양상의 특성일 수 있고, 대

인관계 질을 결정한다(Ahn, 2006). Choi & Lee(2015)도 아동기에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분노를 억제하기가 쉽고, 상대를 속으로 비난하거나 관계를 회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또 다른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정서표현억제, 대인관계문제를 하나의 모형에서 살펴보고,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억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모든 사람에게 갈등 상황은 필연적으로 경험되고(Cho, 2011),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여 대인관계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Kim, 2018). 그렇기에 갈등이 발생했는가 의 여부보다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핵심적일 수 있다(Jung, 2006). 개인이 갈등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를 처리해가는 방식이 바로 갈등대처방식이다(Park & Ko, 2005). 갈등 상황에서 일부는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나 일부는 갈등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Jung & Lee, 2012). Sternberg & Dobson(1987)은 실제 상황에서 18~21세 남녀 대학생들이 대인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연구하여 능동적 갈등완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 등 넷으로 갈등대처방식을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갈등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능동적인 갈등완화방식이고(Cho, 2005; Choi, 2009; Park, 2008), 다른 3개의 유형은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회피 혹은 덮어두는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학습한다(Bretherton et al., 1990). 그렇기에 아동기에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였던 아동들은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방식을 배우지 못한다(Suh, 2001). 보다 구체적으로 Lee & Han(2011)은 아동기에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대인 간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해결방식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나 방임경험이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Kim, 2002; Kwon, 2007). 반대로 정서표현에 갈등을 많이 느껴 정서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식이 아닌 회피 등의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Lee, 2015; Lee & Oh, 2006; Yeom, 2015). 이러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많을수록 정서표현을 하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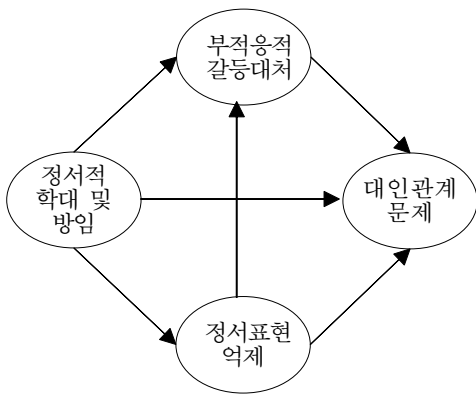
욕구와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갈등에서 정서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갈등상황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대인관계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은 어린 시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달 단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서 처리 및 갈등대처방식을 조명해봄으로써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현재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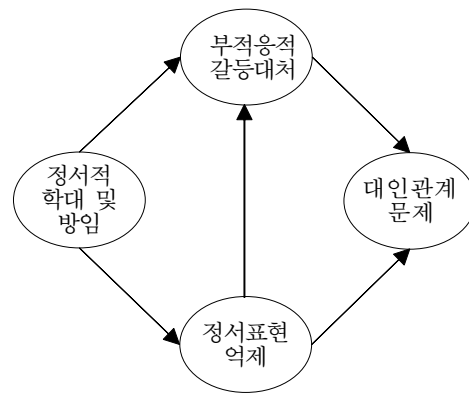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 [그림 1]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들의 순차적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 [그림 2]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두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영향만 준다고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권 소재의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1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체 316명 가운데 남학생은 134명(42.4%), 여학생은 182명(57.6%)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 80명(25.3%), 2학년 71명(22.5%), 3학년 88명(27.8%), 4학년 77명(24.4%)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18~20세 112명(35.4%), 21~23세 135명(42.7%), 24~26세 62명(19.6%), 27세 이상 7명(2.2%)으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 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 & Fink(1998)가 개발하고, Lee(2006)이 번안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다시 Kim(2010)이 타당화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CTQ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5개 하위척도로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성적 학대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의견(Roth et al., 1997)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분리되어 별개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다는 것에 근거하여(Kim & Kim, 2020),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전체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하위척도만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단일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총 10개 문항을 4점 Likert 척도(1=전혀 없음, 4=자주 있음)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하위척도별 .85~.8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나. 정서표현억제 척도

정서표현 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oseph et al.(1994)이 개발한 정서표현태도척도 (Attitud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ATEE)를 Hong(2003)이 번안하고, 이를 Kim(2004)이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90으로,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다.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척도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enberg & Dobson(1987)이 제시한 12가지 갈등대처방식을 Lee(1990)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능동적 갈등완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의 총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속하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격화척도만 이용하였다. 총 13개 문항을 9점 Likert 척도(0= 전혀 아니다, 9=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1990)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하위척도 별 .52~.66으로,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 라. 대인관계문제 척도

대인관계문제척도는 Horowitz(1979)가 개발하고, 이를 Alden et al.(1990)이 재구성한 검사를 Hong et al.(2002)이 다시 한국어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단축형(KIIP-SC)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중심성, 냉담, 통제지배,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자기희생, 과순응성, 과관여의 8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총 40개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매우 그러함)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총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ong et al.(2002)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61~.89로,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대인관계문제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 및 정상성을 살펴보고자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모형 검증을 하기 전에 Russell et al.(1998)의 주장에 따라 각 잠재변인 별로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각각의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대해 동일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연하면,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은 하위변수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고, 하위변수가 따로 없는 정서표현억제나 2개 혹은 8개로 하위변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대인관계문제 척도는 요인 알고리즘 방법(factorial algorithm)을 이용하여 요인부하량이 큰 문항부터 3~4개의 꾸러미에 지그재그로 분배하여 만들어진 하위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Kim, 2016). 그런데 이렇게 문항꾸러미를 하위요인으로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꾸러미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변수를 사용하여 모수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의 초점이 잠재변수 간의 관계 파악에 보다 맞추어져 있을 때는 문항꾸러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Little et al., 2002)에 기반하여 최적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을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다음 단계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운데 상관분석에서 다른 연구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연구결과는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하였다.  $\chi^2$ 는 표본에서 얻어진 공분산행렬과 모형에서 추정되는 공분산행렬의 차이와 표본크기의 곱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속성이 있고,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과 표본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I와 TL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이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Wu, 2016).

마지막으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

등대처방식의 간접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매개의 총합 효과를 제공하고, 개별 간접 효과 추정치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변인을 의미하며, 모델의 적합도 및 모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이다(Bae,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 &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 $N=316$ )에서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2000개의 표본으로 간접 효과를 추정하였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위의 <표 1>에 제시하였다. 실질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다변량 정규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나 모든 항목의 정규분포, 문항 쌍의 이변량 정규분포, 등분산성과 선형성이라는 가정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Wu, 2016), 일변량 정상성이 확보되면 다변량 정상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Curran et al., 1996).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 개별문항을 사용할 때보다 구조방정식의 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인다(Sass & Smith, 2006).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VIF 지수를 확인하였다. 예측 변인 간 상관정도가 높을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Marsh et al., 2004), 대인관계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살펴본 결과, 1.16~1.31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될 수준  $VIF > 10$ (Song & Choi, 2000)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77**	1																	
3	.71**	.71**	1																
4	.92**	.90**	.89**	1															
5	.19**	.17**	.20**	.21**	1														
6	.34**	.32**	.35**	.37**	.71**	1													
7	.31**	.21**	.27**	.29**	.67**	.72**	1												
8	.38**	.27**	.33**	.36**	.60**	.68**	.72**	1											
9	.36**	.27**	.33**	.36**	.84**	.89**	.90**	.87**	1										
10	.26**	.15**	.26**	.25**	.23**	.35**	.38**	.47**	.42**	1									
11	.14*	.06	.13*	.12*	.07	.12*	.16**	.20**	.16**	.32**	1								
12	.10	.06	.11*	.10	.17**	.16**	.18**	.23**	.21**	.23**	.47**	1							
13	.10	.05	.10	.09	.17**	.14**	.19**	.23**	.21**	.24**	.64**	.96**	1						
14	.32**	.23**	.32**	.33**	.56**	.61**	.55**	.59**	.66**	.42**	.20**	.28**	.27**	1					
15	.29**	.22**	.32**	.31**	.59**	.62**	.61**	.61**	.69**	.43**	.24**	.35**	.34**	.83**	1				
16	.33**	.28**	.34**	.35**	.53**	.60**	.57**	.63**	.67**	.52**	.19**	.23**	.20**	.84**	.82**	1			
17	.31**	.29**	.35**	.35**	.55**	.63**	.55**	.60**	.67**	.40**	.23**	.30**	.29**	.77**	.80**	.82**	1		
18	.34**	.27*	.36*	.36**	.60**	.66**	.62**	.65**	.72**	.48**	.23**	.31**	.29**	.93**	.93**	.94**	.91**	1	
19	1.75	1.50	2.11	1.61	2.47	2.20	2.60	2.58	2.48	2.04	4.80	4.89	3.32	2.30	2.35	2.31	2.41	2.34	
20	.73	.61	.53	.56	.76	.81	.72	.74	.66	1.31	2.45	1.61	1.15	.64	.64	.62	.65	.59	
21	1.00	1.29	1.18	1.11	.27	.42	.01	.26	.24	.63	-.20	-.34	-.08	.31	.12	.39	.38	.24	
22	.40	1.22	1.51	.65	-.27	-.29	-.34	.02	-.18	.14	-.93	-.28	-.29	-.69	-.75	-.41	.04	-.52	

1) \*  $p < .05$ , \*\*  $p < .01$

2) 1. 학대 및 방임1, 2. 학대 및 방임2, 3. 학대 및 방임3, 4.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전체, 5. 정서표현억제1, 6. 정서표현억제2, 7. 정서표현억제3, 8. 정서표현억제4, 9. 정서표현억제 전체, 10. 능동갈등격화, 11. 수동갈등격화, 12. 수동갈등완화, 13.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전체, 14. 대인관계문제1, 15. 대인관계문제2, 16. 대인관계문제3, 17. 대인관계문제4, 18. 대인관계문제 전체, 19. 평균, 20. 표준편차, 21. 왜도, 22. 첨도

대체적으로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정서표현억제와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고( $r=.72$ ),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정서표현억제( $r=.36$ ),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대인관계문제( $r=.36$ )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에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과 대인관계문제( $r=.29$ ),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r=.21$ )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운데 성별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r=.18$ ), 정서표현억제( $r=.13$ ), 대인관계문제( $r=.19$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 2. 측정모형 검증

14개의 측정변수들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대인관계문제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71, N=316)=225.50, p<.001, CFI=.95, TLI=.94, RMSEA=.08(90\% \text{ 신뢰구간 } .071\sim.095)$ . 또한, 잠재변수별로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을 각각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81~.88, 정서표현억제는 .79~.87,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은 .54~.63, 대인관계문제가 .88~.92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3. 구조모형 검증

대학생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예언변수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매개변수로,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253.29	81	.93	.95	.08(.071~.094)
경쟁모형	253.85	82	.93	.95	.08(.070~.09)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df=81, N=316)=253.29, p<.001, CFI=.95, TLI=.93, RMSEA=.08(90\% \text{ 신뢰구간 } .071\sim.094)$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경쟁모형도  $\chi^2$

( $df=82, N=316$ )= $253.85, p<.001, CFI=.95, TLI=.93, RMSEA=.08$ (90% 신뢰구간 .07~.09)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구모형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고,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그림 2]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Delta \chi^2(1, N=316)=.56(p>.05)$ ).

#### 4. 최종모형 검증

최종모형에서는 4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를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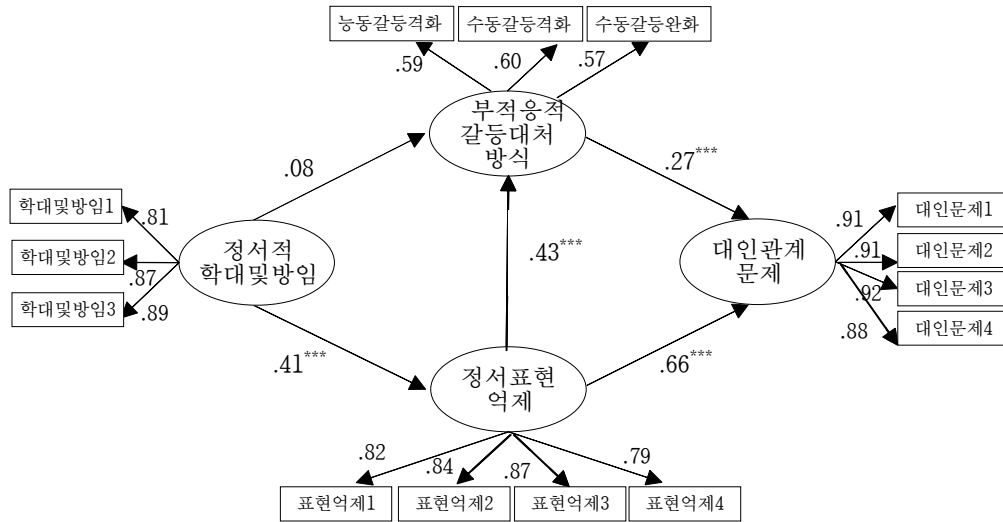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표현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beta=.66$ )과 정서표현억제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ta=.43$ ).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정서표현억제에 미치는 영향( $\beta=.41$ ),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beta=.27$ )이 유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를 설명하는 양을 나타내고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제곱으로 계산되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정서표현억제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6,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정서표현억제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7, 부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정서표현억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69로 나타났다.

<표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정서적 학대 및 방임 → 정서표현억제	.57	.41	.09	6.44***
정서적 학대 및 방임 →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21	.08	.21	.98
정서표현억제 → 대인관계문제	1.42	.66	.13	11.24***
정서표현억제 →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82	.43	.17	4.84***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 대인관계문제	.29	.27	.08	3.91***

\*  $p<.05, ** p<.01, *** p<.001$



[그림 3] 최종모형

### 5.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에서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Chan, 2007)를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alpha=.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4>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 대인관계문제	.06 (-.04~.25)
정서적 학대 및 방임	→ 정서표현억제 → 대인관계문제	.81* (.53~1.07)
정서적 학대 및 방임	→ 정서표현억제 →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 대인관계문제	.14* (.05~.31)

\*  $p<.05$ , \*\*  $p<.01$ , \*\*\*  $p<.001$

<표 4>를 살펴보면 최종모형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81, 95% Bias-corrected CI=[.53, 1.07]로 유의하였고,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이중으로 매개하는 경우의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4, 95% Bias-corrected CI=[.05, .31]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06, 95% Bias-corrected CI=[-.04, .25]로 유의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모형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chi^2$  차이검증에서도 보다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이 채택되어 최종적으로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대인관계 간 직접 경로가 설정되지 않은 경쟁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결국 동일한 자극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개하는 변인이 치료적 개입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확인된 최종 모형에서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직접경로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높을수록 정서표현억제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아동의 정서표현을 저지하는 경향이 있고(Krause et al., 2003; Lumley et al., 2007), 아동은 정서표현에 대해 죄책감·수치심·고통을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결과(Krause et al., 2003; Shipman et al., 2005)와 비슷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수용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험에 노출될수록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억제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갈등상황에서도 합리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연구(Bilodeau, 1992; as cited in Kim, 2018)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구(Lehman et al., 1986) 및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에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외상 사건에 대처한다는 연구(Lumley et al., 2007)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정서표현을 억제할수록 대인관계문제도 증가하였다. 이는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정서표현은 상대방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02) 및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Han(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대인관계상 피해를 입힌다는 연구(Lee & Seo, 2011) 및 갈등의 발생 빈도보다 얼마나 이를 잘 해결했는가 하는 갈등대처방식이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as cited in Choi, 2016, September 16; Lloyd & Cate, 1985)와도 일치한다.

반면,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에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형성된 대처방식이 부적응적일 수 있고, 이후 성인기의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ho, 2004; Gibson & Leitenberg, 2001)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아동기의 종합적인 학대 경험이 아닌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기에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시에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 자체가 갈등대처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이 사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하나의 구인으로 살펴보았는데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 가운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더 깊은 관련을 보이는 하위 변인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각각 구분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서표현억제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서관련 문제들이 매개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이다(Choi & Lee, 2018; Ko, 2008; Lamoureux et al., 2012). 결국 부모의 거부적이고 방임적인 태도에 의해 내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서가 더 커질 수 있으나 이를 표현하기보다 억제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표현억제가 대인관계문제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고 매개변인을 거친 영향만 유의하다고 나온 선행연구들(Choi & Lee, 2018; Kwon & Jung, 2017)과 부분적으로 흐름을 같이 하는데 연구마다 확인된 매개변인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정서영역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정서표현억제와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분노를 부적절하게 억제하기 쉽고, 관계를 피해버리거나 상대방을 속으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정서적 부적응이나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연구결과(Choi & Lee, 2015)와 일치한다. 결국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직접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을 단순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외상을 처리하는 정서적 방식과 대처방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정서적 외상 및 방임경험으로 인한 대인관계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가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일으키고,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인간관계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는 주장(as cited in Chang & Kim, 2011; Salovey & Mayer, 1990) 및 외상 경험 자체보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Shin & Son, 2017)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조절하는 능력을 지닌 아동은 타인과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또래에 의해 더 많이 수용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연구결과(Hubbard & Coie, 1994; as cited in Kim, 201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후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높은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소 축소 보고하거나 비교적 좋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측정도구들을 추가하여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적 학대나 방임경험이 아동기 시기에만 있었는지 혹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는지의 여부도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지속 기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도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경험의 지속 여부 및 다른 유형의 학대 등을 통제된 후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인관계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양상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Kwon & Kim, 2002; Park & Lee,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한 대인관계문제 변수는 결과에 따라 대인관계문제가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술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인관계문제 양상을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자기중심성, 냉담, 통제지배, 사회

적 억제, 비주장성, 자기희생, 과순응성, 과관여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모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성에 비해 여성이 대인외상에 노출되기 쉽고, 외상 후유증에도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cGowan & Kagee, 2013). 또한, 갈등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urphy & Eisenberg, 1996; as cited in Lee & Han, 2011). 따라서 추후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나 방임경험이 분노를 비롯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높인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다수이지만 그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한 전위된 공격성(Lee et al., 2017)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부정적 정서가 조절되지 않고 과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Dijke, 2008)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표현의 복합적인 양상을 담아내기보다 정서표현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외에 인터뷰나 관찰 등의 방법을 보완하여 정서적 학대나 방임경험으로 인한 정서표현의 복합적 양상을 충분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척도에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만을, 갈등대처방식 척도에서는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만을 선택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아동기 외상 척도나 갈등대처방식 전체 척도를 사용한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Perry(2013)는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유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학대를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성장기에 경험한 학대의 부정적 결과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대 경험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어려움과 본 연구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이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문제를 유지하는 역동이 정서적 변인과 갈등대처방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질적으로 아동기의 학대 및 방임경험 자체를 제거할 수 없고, 이러한 경험이 늘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습관이나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은 변화를 이끌어낼 치료적 개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정서표현을 어떻게 하고,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서표현 및 갈등대처방식을 습득하도록 돕는다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References

- Ahn, H. A. (2006).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the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interpersonal-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국문: 안희애(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석사학위논문, 카톨릭 대학교.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https://doi.org/10.1080/00223891.1990.9674088>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tsushi, O., Hitoshi, N., Shinji, N., & Motoyuki, K.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35(1), 57-65.
- Bae, B. R. (2011). *Amos 19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principles and practices*. Cheongram. ☞ 국문: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 Bae, M. H., & Cho, Y. A.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childhood trauma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5), 1849-1870. <http://doi.org/10.15703/kjc.15.5.201410.1849> ☞ 국문: 배미향, 조영아(201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49-1870.
- Barum, E. L., & Perrone-McGovern, K. M. (2017). Attachment,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trauma.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9(1), 39-55. <https://doi.org/10.17744/mehc.39.1.04>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Psychological Corporation.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73-30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326-346. <https://doi.org/10.1080/10705510709336749>
- Chang, J. J., & Kim, J. M. (2011). The effect of emotional awareness based expression training o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4), 861-884. ㉮ 국문: 장정주, 김정모(2011). 정서자각에 기초한 정서 표현 훈련이 정서자각, 정서표현, 정서표현의 억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61-884.
- Cho, E. J. (2004). *Effect of emotional abuse experience in childhood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fficacy and control material as parame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조은정(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Cho, E. J. (2005).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conflict coping and self-expression of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조은주(2005).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Cho, Y. H. (2011). *A study levels of conflict between childcare providers, conflict resolution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국문: 조용현 (2011). **보육교사 간의 갈등수준과 갈등해결 방법 및 직무만족도**.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Choi, J. S. (2016).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relation satisfaction in experience of love: the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cop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 국문: 조재숙(2016). **연애경험에서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갈등대처 행동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Choi, N. Y., & Lee, Y. H. (2018).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interpersonal problem: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self-concept and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2), 137-166. ㉮ 국문: 최나윤, 이영호(2018).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초기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5**(2), 137-166.
- Choi, S. I. (2009).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group counseling using cinematherapy upon*

- the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 for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국문: 최순이(2009). **영화치료를 적용한 의사소통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갈등 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Choi, Y. G., & Lee, J. Y. (2015).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Mediating roles of disconnection/rejection schema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1), 323-343. <http://doi.org/10.15753/aje.2015.16.1.014> ㉮ 국문: 조유경, 이지연(20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단절 및 거절도식과 심리적 부적응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6(1), 323-343.
- Choi, Y. R. (2020, September 16). *Confinement and murder of a travel bag for a son of a cohabitation man in his 40s, sentenced to 22 years in prison*. Hankyoreh.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62425.html>. ㉮ 국문: 최예린(2020.9.16).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 40대, 징역 22년 선고**. 한겨레.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doi.org/10.1037/1082-989X.1.1.16>
- Dijke, A. (2008) The clinical assessment and treatment of trauma-related self and affect dysregulation. In A. J. Vingerhoets, I. Nyklicek, & J. Denollet (Eds.), *Emotion Regulation* (pp. 150-169).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0-387-29986-0\\_10](https://doi.org/10.1007/978-0-387-29986-0_1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orton.
- Gibson, L., & Leitenberg, H. (2001). The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nd stigma on methods of coping with sexual assault among undergraduate women. *Child Abuse & Neglect*, 25(10), 1343-1361. [https://doi.org/10.1016/S0145-2134\(01\)00279-4](https://doi.org/10.1016/S0145-2134(01)00279-4)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https://doi.org/10.1037/0022-3514.85.2.348>
- Han, K. H. (2012).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국문: 한경희(201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Hong, C. H. (2003). *The realtions between emotional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on model of emotional express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국문: 홍창희(2003). **정서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서표현성**

의 매개모델 검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Hong, C. Y., & Kim, J. M. (2017).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traumatic experiences on their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ing effect of self-system traumatiz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3(4), 333-353. <http://doi.org/10.33770/JEBD.33.4.16> ☞ 국문: 홍채영, 김정민(2017). 대학생의 대인의상경험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자기체계손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3(4), 333-353.
- Hong, S. H., Park, E. Y., Kim, Y. H., Kwon, J. H., Cho, Y. R., & Jin, Y. K. (2002).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KIIP-S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23-940. ☞ 국문: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구성. *한국심리학회지*, 21(4), 923-94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Hong, Y. W. (2020, June 8). *Child abuse in Changnyeong, with a frying pan, with your daughter's finger*. Maillkyeongiae.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584709/> ☞ 국문: 홍연우(2020.6.8). **창녕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 프라이팬으로 딸 손가락을....** 매일경제.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1), 5-15. <https://doi.org/10.1037/0022-006X.47.1.5>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 <https://www.jstor.org/stable/23087905>
- Hwang, Y. D., & Lee, J. S. (2010).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behavior and children's irrational belief on children's anger expression sty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0), 77-88. ☞ 국문: 황연덕, 이진숙(2010).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10), 77-88.
- Josephs, S., Williams, R., Irwing, P., & Cammock, T. (1994).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attitudes towards emotional ex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869-875. [https://doi.org/10.1016/0191-8869\(94\)90231-3](https://doi.org/10.1016/0191-8869(94)90231-3)
- Jung, J. E., & Sohn, E. J.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

-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7(5), 399-420. <http://doi.org/10.15703/kjc.17.5.201610.399> ㉞ 국문: 정지은, 손은정(2016).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이성 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의 매개역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7(5), 399-420.
- Jung, M. (2006). *The effect of optimism and self efficacy on conflict strateg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㉞ 국문: 정민(2006). **이성교제 시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갈등대처 방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Jung, S. H., & Lee, H. Y. (2012).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4(6), 793-805. <http://doi.org/10.13000/JFMSE.2020.8.32.4.988> ㉞ 국문: 정선현, 이희영(2012).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지*, 24(6), 793-805.
- Kang, J. H. (2018). The effects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the adult social relationships.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32(1), 51-74. ㉞ 국문: 강정희(2018). 성장기 학대 경험이 성년기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51-74.
- Kang, J. Y., & Jang, H. J (2018). Identification of subgroups of child maltreatment victims and their problematic behaviors: Utilizing maltreatment dimens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2, 61-91. <http://doi.org/10.24300/jkscw.2018.06.62.61> ㉞ 국문: 강지영, 장화정(2018). 아동학대 세부특성에 따른 피해아동의 하위집단 분류와 문제행동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62, 61-91.
- Kim, E. H. (2014).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suppress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the self-compartment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㉞ 국문: 김은혜(2014). **정서표현 억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 구획화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Kim, E. J.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voidance coping style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early adulthoo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㉞ 국문: 김은정(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Kim, E. J., & Kim, J. S.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n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psychopathology and interpersonal problems: With a focus on the distinct paths of emotion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1(3), 23-44. <http://doi.org/10.15703/kjc.21.3.202006.23> ☞ 국문: 김은정, 김진숙(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23-44.
- Kim, E. K. (2018).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on the conflict solution in late-school children: The mediation effects of anger emotional an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국문: 김은경(2018). **학령후기 아동의 공감능력이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에 미치는 영향: 분노정서 및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Kim, E. S., & Lee, J. Y. (2018). Childhood emotional trauma influence on relationship problem of emerging adulthood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social self-concept.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9(3), 403-429. <http://doi.org/10.15818/ihss.2018.19.3.403> ☞ 국문: 김은석, 이지연(2018).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 진입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9(3), 403-429.
- Kim, H. G. (2004). *Testing the integrated model of depressive symptoms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Korean marri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희경(2004).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과 도움추구 태도에 관한 통합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Kim, H. I., Shin, M. S., & Kim, E.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buse and adulthoo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y on emotional awareness and emotional inhibi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4), 353-380. ☞ 국문: 김혜인, 신민섭, 김은정(2012).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53-380.
- Kim, J. Y., & Jin, M. K.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6(4), 355-378. <http://doi.org/10.21509/KJYS.2019.04.26.4.355> ☞ 국문: 김지윤, 진미경(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4), 355-378.
- Kim, S. J. (2002).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김선주(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Kim, S. Y. (2016). *Basics and expans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Hakjisa. ㉮ 국문: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학지사.
- Ko, N. R. (2008). *The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interpersonal problem who had complex trauma in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고나래(2008).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https://doi.org/10.1016/S0145-2134(02)00536-7)
- Kwon, J. H (2007).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clarif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국문: 권진희(2007).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Kwon, K. I., & Jung, M. J. (2017). The effect of parents' emotional abuse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early adulthood: Mediating effects of traumatized self-system and maladaptive anger coping behavi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4), 398-407. <http://doi.org/10.15703/kjc.18.4.201708.389> ㉮ 국문: 권경인, 정미정(2017).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체계 손상과 부적응적 분노대처 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4), 389-407.
- Kwon, S. M. (2010). *The second act of life in college life*. Hakjisa. ㉮ 국문: 권석만(2010). 인생의 2막 대학생활. 학지사.
- Kwon, S. M. (2019).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 for young people* (3rd ed.). Hakjisa. ㉮ 국문: 권석만(2019).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3판]. 학지사.
- Kwon, S. M., & KIM, J. Y. (2002). Relationships of mental representations on self and significant others with interperson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705-726. ㉮ 국문: 권석만, 김지영(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Lamoureux, B. E., Palmieri, P. A., Jackson, A. P., & Hobfoll, S. E. (2012). Child sexual abuse and adulthood-interpersonal outcomes: Examining pathways for intervention.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6), 605-613. <https://doi.org/10.1037/a0026079>
- Lee, C. B., & Jeon, H. S. (2015). The effect of family 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6), 465-483. <http://doi.org/10.15703/kjc.16.6.201512.465> ㉮ 국문: 이창배,

- 전혜성(2015). 대학생의 가족분화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6), 465-483.
- Lee, H. G., Lee, S. J., Lee, E. J., & Park, S. A. (2002). *Psychology of emotion*. Bobmunsa. 국문: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2002). *정서심리학*. 범문사.
- Lee, H. K. (1990). *A change in the method of resolving conflict in humanity through role play group consul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국문: 이희경(1990). *역할놀이 집단상담을 통한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Lee, J. Y., & Seo, S. G. (2011). Irrational beliefs, conflict tactic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early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3), 775-791. 국문: 이지연, 서수균(2011).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75-791.
- Lee, N. Y., Ha, S. H., & Chang, M. S. (2017). Emotional trauma in childhood and depression in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in and displace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2), 203-222. <http://doi.org/10.15703/kjc.18.2.201704.203> 국문: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Lee, S. M., & Oh, K. J. (2006). The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defici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al expressivity on psychological maladaptation of middle-aged,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133-125. 국문: 이승미, 오경자(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기혼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33-125.
- Lee, S. W., & Han, J. S. (2011). The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on the method of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71-80. <http://doi.org/10.6115/khea.2011.49.5.071> 국문: 이서원, 한지숙(2011).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5), 71-80.
- Lee, Y. K.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 interpersonal problem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 이유경(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이 심리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hman, D., Ellard, J., & Wortman, C. (1986). Social support for the bereaved: Recipients' and providers' perspectives in what is helpfu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4(4), 438-446. <https://doi.org/10.1037/0022-006X.54.4.438>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
- L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2), 755-773. <https://doi.org/10.1177/0265407585022005>
- Lumley, M. A., Neely, L. C., & Burger, A. J. (2007). The assessment of alexithymia in medical setting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and treating health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3), 230-246. <https://doi.org/10.1080/00223890701629698>
- Marsh, H. W., Martin, D., James, P., & Richard, W. (2004). Why multicollinearity matters: A re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elf-concep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3), 518-522. <https://doi.org/10.1037/0022-0663.96.3.518>
- McGowan, T. C., & Kagee, A. (2013).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south African university student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49(3), 327-339. <https://doi.org/10.1177/0081246313493375>
- Messman-Moore, T. L., & Coates, A.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75-92. [https://doi.org/10.1300/J135v07n02\\_05](https://doi.org/10.1300/J135v07n02_05)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Murphy, B., & Eisenberg, N. (1996). Provoked by a peer: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42(1), 103-124. <http://www.jstor.org/stable/23090522>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7).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7.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70](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70) 국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8).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8.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82](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82) 국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아동권리보장원.
- Park, G. A., Lee, J. G., & Gwon, H. S. (1998). *Interpersonal improvement program*. A Youth Conversation Center.

- Park, M. R. (2003). *The effects of emotional abuse by mother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박미란(2003).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Park, S. M. (2017).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types on interpersonal withdrawal of college students with trauma experienc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rigid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 국문: 박선미 (2017). **아동기 외상 유형이 외상 경험 대학생의 대인관계 철회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Park, Y. H., & Ko, J. H. (2005).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65-83. ㉮ 국문: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 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Park, Y. J., & Lee, Y. H. (2010). The effects of anxious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ve experience sty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441-452. ㉮ 국문: 박영주, 이영호(2010).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우울경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41-452.
- Park, Y. S. (2008).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raining on interpersonal conflict solu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박영순(2008). **의사소통훈련이 초등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Perry, B. D. (2013). *Bonding and attachment in maltreated children: Consequences of emotional neglect in childhood*. The Child Trauma Academy.
- Roth, S., Newman, E., Pelcovitz, D., van der Kolk, B., & Mandel, F. S. (1997). Complex PTSD in victims exposed to sexual and physical abuse: Results from the DSM-IV field trial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4), 539-555. <https://doi.org/10.1023/a:1024837617768>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https://doi.org/10.1037/0022-0167.45.1.18>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Sass, D. A., & Smith, P. L. (2006). The effects of parceling unidimensional scales on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4), 566-586.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1304\\_4](https://doi.org/10.1207/s15328007sem1304_4)
-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47-158. <https://doi.org/10.1037/0022-0167.46.2.147>
- Seo, M. J., & Kim, D. Y. (2012). The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n emo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negative belief of university students with an experience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3), 557-572. <http://doi.org/10.17315/kjhp.2012.17.3.001> ☞ 국문: 서민정, 김도연(2012). 수용-전념 치료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정서 인식과 표현 및 부정적 신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557-572.
- Seok, A. R., & Kim, Y. K. (2018). The effects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on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perception clarity and emotional dysregul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2), 305-329. <http://doi.org/10.15753/aje.2018.06.19.2.305> ☞ 국문: 석애란, 김영근(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9*(2), 305-329.
- Shin, Y. M., & Son, E. J. (2017). The influence of emotional abuse experience on early adult depress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moderating effects of gratitud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5), 239-261. <http://doi.org/10.15703/kjc.18.5.201710.239> ☞ 국문: 신유미, 손은정(2017).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의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감사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8*(5), 239-261.
- Shipman, K., Edwards, A., Brown, A., Swisher, L., & Jennings, E. (2005). Managing emotion in a maltreating context: A pilot study examining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9), 1015-1029. <https://doi.org/10.1016/j.chiabu.2005.01.00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0.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Son, D. H. (2020, June 7). *The longer you stay home in Corona, the greater the risk of child abuse*. ChosunBiz.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1243.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1243.html). ☞ 국문: 손덕호(2020.6.7).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 늘어 아동학대 위험 커져*. 조선비즈.
- Song, B. H., & Chol, K. C. (2000). A study on multicollinearity in regression diagnostic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Statistics, 21*(1), 61-93. ☞ 국문: 송병호, 최규정

- (2000). 다중공선성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소논문지*, 2(1), 61-93.
- Song, M. R.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igence and children's ego resilience and adaptation to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송미령(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Sternberg, R. J., & Dobson, D. (1987).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 analysis of stylistic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794-812.
- Suh, S. J. (2001). *Effects of parenting program for preventing emotional in clinical and risk gro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국문: 서수정 (2001).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안정애착 형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https://doi.org/10.1177/0146167295219008>
- Wu, J. P. (2016).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cept and understanding*. Hannarae Academy. ☞ 국문: 우종필(2016).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아카데미.
- Yeom, S. A. (2015). *Influences of self-acceptanc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relations with romantic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up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 국문: 염신애(2015).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정서표현양가성이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Yoo, S. Y. (2017, August 11). 60% of college students "Honebap-Honeul... I will not marry" . Dong-A Ilbo.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811/85778423/1> ☞ 국문: 유성열(2017.8.11). **대학생 60% "혼밥-혼술... 결혼 안할 것"**. 동아일보.
- Yu, E. Y., Yoon, C. K., & Yang, Y.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in some reg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 274-283. <http://doi.org/10.5762/KAIS.2012.13.1.274> ☞ 국문: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2012).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 274-283.